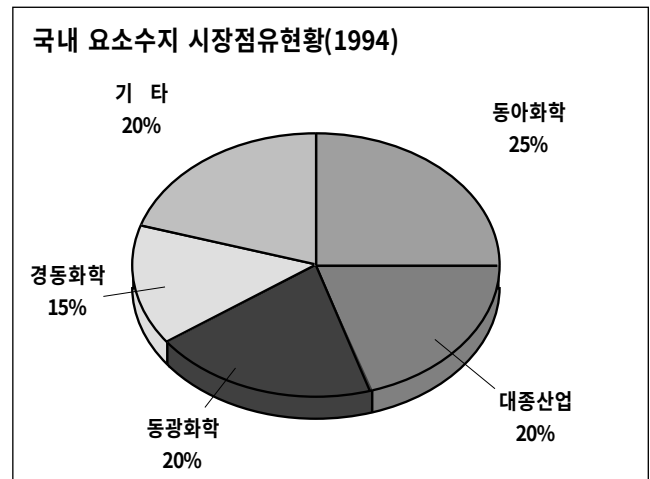


# 요소 수지

## 시장현황

94년 요소수지 시장은 3000톤규모로 국내생산이 1000여톤이며 나머지는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다. 국내 요소수지 시장은 지난 20년간 동광화학·동아화학·경동화학·대중산업이 분할해 왔으나 90년 초 소규모 중소기업이 신규참여해 가격경쟁이 활발하다. 그러나 생산량 1000톤을 기준할 때 동아화학이 25.0%, 대중산업 20.0%, 동광화학 20.0%, 경동화학 15.0%의 점유율 보이고 있으며 기타 소기업이 2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들어 소규모 기업의 난립 및 수요 정체는 물론 94년 요소를 비롯한 원료가격의 인상으로 이들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요소수지의 용도는 현재 대부분 그릇을 비롯한 쟁반 등 식기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식기의 고급화와 다양한 소재의 개발에 따른 도자기·유리 등 경쟁원료의 인기로 급격히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내수시장 확대는 물론 수출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국산품이 수입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요기업들이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요소수지산업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요소수지 생산현황(1994) |       | (단위 : M/T, %) |
|--------------------|-------|---------------|
| 구 분                | 생산량   | 점유율           |
| 동 아 화 학            | 250   | 25.0          |
| 대 중 산 업            | 200   | 20.0          |
| 동 광 화 학            | 200   | 20.0          |
| 경 동 화 학            | 150   | 15.0          |
| 기 타                | 200   | 20.0          |
| 합 계                | 1,000 | 100.0         |



## 가 격

가격은 93년 Kg당 1100 1200원이었던 것이 94년 하반기 1200 1300원으로 소폭 인상되기는 했으나 원료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치열한 시장쟁탈전으로 가격인상도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소수지 시장 역시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태에서 탈피해 자동화 설비부문에 투자가 있어야 하며 품질개발을 서둘러 수요정체 및 수입품 침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